

R&D 세액 공제 수도권 1조6672억 ... 광주·전남은 271억

연구·인력개발비도 '빈익빈 부익부'

민주 이용섭 의원 "업체당 지원금도 지역간 큰 격차"

연구 및 인력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남지역 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세제 혜택이 1%대에 그쳐, 지역 경제의 미래도 암울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구인력 개발비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액은 1조6672억원이었다. 이 중 80.2%인 1조3681억이 수도권 기업에 세제 혜택이 돌아갔고, 호남지역 기업에는 전체의 1.6%인 271억원에 불과했다.

부산·경남지역 기업은 1238억원(7.4%), 대전·충청은 976억원(5.9%), 대구·경북은 821억원(4.9%)에 머물렀다.

업체당 세제 지원 혜택도 수도권과 지방기업의 차이가 심해 지난해 서울 지역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액이 업체당 2억2000만원인데 비해 호

남지역 기업은 업체당 6500만원, 대전·충남지역 기업은 8800만원에 그쳤다.

이는 전국 가동 법인 41만6117개 업체 중 호남지역이 차지하는 비중(3만7679개, 9.05%)과 비교해 터무니 없이 낮아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빈익빈 부익부 고착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용섭 의원은 "최근 3년간 R&D 세제 혜택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기업의 세제지원 비중이 80%를 넘어섰다"며 "세제 지원에 있어서도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R&D 관련 세액공제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에 신성장동력사업, 원천기술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도권 외 지역에 미래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이나 원천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인력 개발비용에 대해 전년도 대비 증가분의 40~50%를, 설비투자는 10%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삼성 LED 설치 예술 작품

최근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개최된 '뉘 블랑슈(Nuit Blanche: 백야)' 축제에서 시민들이 삼성전자가 LED를 테마로 선보인 설치 예술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아차 노조원 "전임자 수 줄여라"

'무급자 임금 보전' 조합비 인상 집행부 방침에 반발

기아차 노조 집행부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라 생긴 무급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조합비 인상 방침에 대해 현장 노조원이 인상 폭이 너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4일 기아차 노조(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최근 임금 및 단체협상 후속 논의를 벌여 노조가 임금을 부담하는 무급 전임자 85명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조 집행부는 이에 따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진행하며 매달 기존 통상

임금의 1.2%를 걷던 조합비를 0.5~0.6% 올려 1.7~1.8%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 사이에서는 무급 노조 전임자 수를 줄여 조합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인상 폭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기아차에는 노조법에 규정된 타임오프 적용 대상 유급 노조 전임자 21명과 무급 전임자 85명 등 모두 106명의 전임자가 있다.

타임오프제 시행 전 회사로부터 임

금을 받은 204명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조합원 사이에서는 조합비 인상 폭을 더 줄이고 매년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내는 조합비 35억원도 더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집행부는 5~6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 인상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조합원의 반대 목소리가 커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5일 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 인상 안건이 가결되지 못하면 6일 속행되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인상 폭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30년 세관 역사

한눈에 볼수있다

광주세관 순회 전시

광주세관(세관장 진인근)은 8일까지 정무광주지방합동청사 1층에서 세관 130년 역사 전시회를 개최한다.

〈사진〉

관세청 개청 40주년 기념 행사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개청 이전 및 이후의 모습과 130년 역사 변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지난 8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인천공항, 인천 순회에 이어 광주가 마지막 전시회다.

세관 직원들의 업무현장 및 사라진 세관, 감시정 변천 등 사진 50점을 전시하며 방문객에게는 광주세관 홍보자료와 함께 FTA(자유무역협정) 등 세관의 주요 업무 홍보물을 제공한다.

/최재호기자 lion@

9월 중 권 물동량 역대 최고치

154만6천TEU ... 작년동월비 8.3% 증가

광양항도 소폭 증가

국토해양부는 전국 항만의 9월 한달간 컨테이너 물동량(추정)이 154만6천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로, 작년 동월보다 8.3%(11만9천TEU)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추석과 중국의 중추절로 작업 일수가 줄어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지만, 역대 9월 물동량으로는 최고 실적이 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수출입 화물은 51만9천TEU로 5.7% 늘었다.

/연합뉴스

부산항의 9월 물동량은 114만6천TEU로 10% 늘었고, 광양항은 광주·여수산업단지 수출물량의 일시적 감소로 0.9%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9월 물동량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인천항은 1.7% 증가한 14만9천TEU를 처리했다.

1~9월 실적은 1천435만4천TEU로 작년 동기(1천181만1천TEU)보다 21.5% 늘었다.

국토부는 올해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이 1천900만TEU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스마트폰 국제정보 조회

'모바일 국제청' 개설

국제청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국제청 홈페이지인 '모바일 국제청'(http://m.nts.go.kr)을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

'모바일 국제청'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모두 이용가능하며 국제청 관련 뉴스, 사업자 휴폐업 조회, 급여세액 계산 등 12개 메뉴와 함께 트위터·블로그 연결 메뉴를 구성했다.

국제청은 또 최초의 공식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로 '국제청 트위터'(http://twitter.com/nts.go.kr)를 개통해 최신 세관정보와 뉴스 등을 전달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납세자와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제청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홈페이지(www.nts.go.kr)를 전면개편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S-5일 페스티벌'

에스오일, 매월 경품 행사

에스오일은 연말까지 숫자 '5'가 들어간 매월 5, 15, 25일 주유소나 충전소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해 경품을 주는 'S-5일 페스티벌'(www.s-oilbonus.com)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에스오일 보너스카드 회원이 행사 기간에 이 회사 계열의 주유소와 충전소에서 제품을 사면 자동 응모된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업계 첫 트위터 개설

날씨에 맞는 타이어 점검 정보 제공

금호타이어(대표이사 김중호)는 5일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로 트위터(http://twitter.com/Dr-Tire)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KumhoTires)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이를 통해 고객의 요구를 제품과 서비스에 적극

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계절과 날씨에 맞는 타이어 점검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호타이어는 트위터 및 페이스북 개설 기념으로 오는 15일까지 축하메시지 게재 이벤트를 진행하며, 당첨자에게 타이어를 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직장인 5명 중 1명 꼴 '이직'

20~30대 992명 조사

20~30대 직장인들은 5명 중 1명 꼴로 올해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20~30대 직장인 9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직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3.1%에 달했다.

실제로 이직에 성공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1.7%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직장을 옮긴 응답자들이 이직할 때까지 이력서를 제출한 횟수는 평균 8차례였고 면접 횟수는 2.5차례였다.

바뀐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묻자 69.3%가 이전 직장보다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직 성공 요인(복수응답)으로는 경력관리(48.8%)와 절묘한 이직 시기(43.3%)를 많이 꼽았고 인맥 관리(29.8%)나 꾸준한 정보 탐색(21.9%) 등을 거론한 응답자들도 있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878.94 (-9.35)
코스닥지수	493.55 (-0.23)
금리(국고채 3년)	3.29% (-0.01)
원·달러 환율	1,130.70원 (+8.4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본점(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062)227-9970

순천점(061)752-9940

목포점(061)262-9200

익산점(063)851-2422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무인텔 필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